

묵향보다 은은한 자비 향기

금강정사 주지 상범 스님 23일 차상위계층 돕기 선서회展

부산 다대포 입대아파트. 공과금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기고 물공급이 중단됐다. 쫓겨나고 생활하는 이웃이 있다는 소식을 접한 입대아파트 인근의 금강정사 주지 상범 스님과 신도들은 충격을 받았다. 이 충격이 상범 스님과 신도들이 금강정사 인근 지역의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들어가지 않는 잠재빈곤층(돕기를 시작한 계기가 됐다.

20년 전부터 사할 인근의 불우 이웃을 꾸준히 도와온 상범 스님이었지만 차상위계층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였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손쓰지 못하는 사할 주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12세대를 돕기 시작하면서 사할 주변의 이웃 챙기기가 자

연스럽게 시작했다. 비정기적으로 밑반찬을 해주고 후원금을 지원해오다 2004년 하루차집을 열고 후원회 모임을 시작해 2006년 2월에는 차상위계층을 돕기 위한 후원회인 '금강'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금강'은 밑반찬, 차량지원, 가사도우미, 목욕, 빨래 도우미, 후원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원봉사나 후원에 동참하는 회원 200명이 활동하고 있다. 금강정사 신도들

중심으로 모였던 후원회 '금강'은 차츰 종교를 넘어선 후원 조직으로 확대됐다. 재정의 문제로 더 많은 이웃을 돕기 위한 고민이 시작됐다.

20년 동안 남몰래 이웃을 도와오며 드러내길 꺼려했던 상범 스님이 처음으로 선 서화 전시회를 기획하게 된 이유다. 12월 23일 오후 4시 시작해 29일까지 국제신문 4층 제1전시실에서 열리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상범 스님 선서회 전시회는 더

많은 동참 위해 판매금액 대폭 할인 수익금 전액 · 보시기금으로 조성

많은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한 특별한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에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후원회 '금강' 총재로 있는 상범 스님이 5년 전부터 준비해온 작품들이 선보인다. 상범 스님의 금강경 병풍 40점, 반야심경 15점, 가리개 17점, 액자 30점을 비롯 정어 스님, 양송 선생, 성타 스님 등의 작품 등이 전시된다. 8쪽 금강경 병풍을 만들기 위해서는 꼬박 한 달을 매달려야 하는 힘든 작업이었지만 상범 스님은 힘든 줄 모르고 작품에 매달렸다. 게다가 작품 판매 금액을 대폭 하향 조정해 이웃돕기에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번 전시회 수익금 전액은 차상위계층 돕기 기금으로 조성되며 전시회의 성과에 따라 후원회 '금강'을 사단법인화하는 고리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또한 상범 스님은 불교의 4대 명절에 금강정사에 들어오는 보시기금을 이웃돕기 기금으로 조성, 어려운 이웃을 위해 회향하는 방식으로 사할 주위의 어려운 이웃부터 챙기는 사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새겨 했다. (051)204-0020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3222시간 봉사 '밝은 빛' 밝혀요

무료급식소 '밝은세상'

12월 6일 무료급식소 '밝은세상' 급식이 끝나갈 무렵, 공양을 마친 할머니 한분이 함장 한 채 허리를 구십도 각도로 꺾어 인사를 하고 나간다.

매일 '밝은세상'을 찾는 이 할머니를 보는 이훈수(50·해산) 소장과 봉사자들은 마음이 숙연해진다. 하루 한 끼의 점심을 주위 어르신들에게 대접해 오면서 제일 기쁘고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다.

이훈수 소장 자원봉사자들이 무료급식을 시작한 것은 3년 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정토사주지

수 소장의 봉사에 의존한다. 3년 전부터 이 소장은 오전에 회사 업무를 처리하고 공장 급식소로 달려와 이곳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일일이 챙긴다. 분기별 정산 때에는 집에까지 서류를 챙겨들고 가 늦은 밤까지 정리해야 할 정도다.

적십자 등을 통해 꾸준한 봉사를 펼쳐온 이 소장은 2000시간 봉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봉사에 대해 앞사간 의



'밝은세상'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고 있다.

식을 갖고 있던 이 소장은 무료급식소 운영에 관련된 회계, 재무 업무를 원활히 보기 위해 교육과 세미나를 받는다면, 자원봉사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봉사자와 봉사시간을 전산

정토불교대학 졸업생 · 신도 등 85명 뜻 모아

어르신들 위한 한글 · 취미교실 열기 원 세워

택진) 한소리청년회, 정토불교대학 동문들이 주축이 돼 무료급식을 해오다 정토사공양원으로 무료급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불교계에서 하는 유일한 무료급식소였던 정토사공양원은 보다 나은 식단과 시설을 갖추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면서 '밝은세상'으로 이름을 바꿨다.

정토불교대학 졸업생과 정토사 신도들이 주축이 돼 자원봉사들이 꾸려졌다. 25개 팀의 무료급식 봉사팀과 5개 팀의 도시락 배달 봉사자들이 순번을 정해 맛있는 음식 준비와 배식, 도시락 배달, 설거지까지 도맡고 있다.

으로 관리하고 있다. 올 한 해 '밝은세상'에서 총 85명이 3222시간의 봉사 시간을 했다. '밝은세상'이 어려운 가운데도 여법하게 꾸려지는 데는 이 소장의 철저한 봉사와 더불어 정토사와 정토 불교대학동문, 울산의사회인 심어회에서 꾸준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 후원자들도 정성을 모아주고 있다.

밝은세상의 꿈은 더 넓은 장소로 옮겨 한글교실이나 여기 취미 교실을 열어서 어르신들에게 한끼 밥과 함께 한 아픔의 즐거움을 드리는 일이다. (052)261-0079

후원계좌: 240-01-004593(농협 예금부 밝은세상)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 부산지사 : (051)632-0064
-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 경남남부지사 : (011)571-5316
- 울산지사 : (052)272-0909

용호복지관 개관 10주년 행사 다채

15일, 영상물 상영 · 특강 등

사회복지법인 불교도가 위탁 운영하는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혜종이 12월 15일 부산문화회관 영빈관에서 개관 10주년 기념행사를 연다.

1999년 3월 개관한 용호복지관은 1999년 5월 불교도가 위탁받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하는 복지를 지향하며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 복지를 이끌어왔다.

15일 오후 5시부터 열리는 10주년 기념행사는 복지관 10년사 영상물 상영, 자원봉사자 후원자, 장기근속자 시상, 법인 대

표이사 인사에 이어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특강이 열린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 교계에서 여섯 번째로 운영하게 된 복지관으로 재가 복지봉사센터, 무료급식소, 용호어린이집 등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힘써왔다.

용호복지관은 최근 용호햇빛연극단을 결성, 찾아가는 문화 복지를 펼치는가 하면 용호장승축제를 열어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복지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051)628-6737

천미희 기자

노인학대에방캠페인 사진展

부산시서부노인학대센터(소장 김영권)는 12월 6, 7일 부산진구청 1층 특별전시실에서 '노인학대에방캠페인 사진전 및 서명운동'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확대유형별 사진 및 그림(카툰) 전시, 학대의 개념, 유형, 신고전화 및 사업안내에 대한 전시, 노인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조성을 위한 서명운동, 현장에서 직접 노인학대상담을 실시하는 아웃리치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직원들은 물론 노인학대에 방을 위해 노인들이 주축이 돼 결성된 노인학대지킴이단이 함께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천미희 기자

표창사 산불 대비 소방훈련



표창사(주지 청운)와 밀양소방서(서장 신영우)는 11월 29일 산불 피해 방지를 위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사진).

표창사 경내에서 스님, 신도, 소방대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훈련은 산불 발생시 초동진화체계 확립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한 산불피해 방지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재 반출 훈련 등도 포함됐다. 천미희 기자

"환우들 행복 찾아 주는 것이 곧 수행"

부산백병원 범우회 승변법회

창립 20년을 바라보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범우회(회장 이원재)는 12월 4일 강당에서 범어사직할포교원 반야원 주지 목종 스님을 법사로 초청, 승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를 후원한 반야원 주지 목종 스님은 범어를 통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환자, 또는 병의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도록 범우회

회원들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교가 무엇인지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나 개인은 물론 환우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걷는 것이 곧 진정한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백병원범우회는 이원재 회장 취임이후 2005년 1월부터 월 1회 법회를 가지며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다져왔다. 천미희 기자



지난해 8월 아프리카에 한국불교를 전하러 갔던 동봉 스님은 11월 30일부터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101일 국토 대장정 고행정진"을 떠납니다. 출발은 경기도 광주 우리절에서, 회향은 내년 3월 10일 임진각에서 봉행 됩니다.

국토대장정 목적 과 방법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동봉스님의 고행정진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불교 최초로 짐은 대륙 아프리카의 진출을 위한 기금조성, 둘째,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달래는 동시 평화적 남북통일의 염원이며, 셋째, 가정경제를 비롯하여 사회경제 국가경제 살리기, 넷째는, 삼보님과 시주의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고행정진의 방법에 대해서는 출발한 당일로부터 회향하는 날까지 매일 20킬로미터(약50리) 정도를 도보로 걷습니다. 걷는 동안 석가모니불을 염송하며,세간의 다양한 모습과 소리를 들으면서 상담하고 봉사도 합니다. 매일같이 소원들을 모아 아침에는 금강경을 읽고 저녁에는 아미타경과 초발심자경문을 읽으며 기도 축원을 드리며, 중생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민박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와 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1차적 방법이므로 도보대장정하는 그 지역에 따라 얼마든 가능합니다.

고행정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 중에 직접 몸으로 정진할 분들은 승속 남녀노소 누구든 가능하며 숙식을 비롯한 모든 경비는 각자 부담 원칙으로 합니다. 동참기간도 단 하루에서부터 3일간, 5일간, 7일간, 21일간, 또는 전체 기간을 함께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참여하는 불자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 부처님께 기도하고 축원을 합니다.

고행정진기간을 딱 떨어지는 100일로 하지 않고 101일로 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절 회주 비구東峰正休 합장
010-4800-0882 / kipoo255@yahoo.co.kr / db4676@chol.com
후원입금계좌 : 우리은행 338-058787-13-001(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우리절)

- 정진기간 : 2006년11월30일부터 ~ 2007년3월10일까지
- 출발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 회향장소 : 임진각
- 후 원 : 태광컴퓨터(주) 태광실업주식회사 정산컨트리클럽 HUCHEMS 유원스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우리절 동선회 목련사랑

국토대장정 일정표 (기상상황에 따라 약간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토대장정 고행정진 출발시간 - 아침 08:00

제 2주 12월 7일 - 12월 13일 [128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12월 7일[목]	광 치	-	원통읍 21km
12월 8일[금]	원통읍	-	용대리 18km
12월 9일[토]	용대리	-	소동령 17km
12월10일[일]	소동령	-	건봉사 18km
12월11일[월]	건봉사	-	죽 왕 21km
12월12일[화]	죽 왕	-	속 초 20km
12월13일[수]	속 초	낙산사	홍련암 15km

제 3주 12월 14일 - 12월 20일 [139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12월14일[목]	낙산사	-	하조대 22km
12월15일[금]	하조대	-	주문진 20km
12월16일[토]	주문진	-	강 룡 20km
12월17일[일]	강 룡	-	정동진 17km
12월18일[월]	정동진	-	망상역 21km
12월19일[화]	망 상	-	동해항 20km
12월20일[수]	동해항	-	근 덕 19km

*위 국토대장정 일정표는 현대불교신문에 2주차씩 연속해서 회향 일정까지 게재해 드립니다.